

고구려 國馬

徐 榮 教

(목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1. 머 리 말
2. 國馬의 용례검토
3. 國馬와 市人馬
4. 國馬의 증식과 遊牧民
5. 맺 음 말

1. 머 리 말

고구려는 중원의 강국이나 초원의 유목민족들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 기병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다음의 3가지가 기본적으로 요구된다. 마구·무기·갑주 등의 기병장비의 생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숙련된 기수를 양성해야 하고, 일정한 기량을 가진 전마(戰馬)를 키우고 그 적정 수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기병의 구성요소는 기병장비와 기수 그리고 말이다. 필자가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말(馬)이다.

지금까지 기병의 장비가 연구의 초점이 되었다. 고고학적 발굴 성과가 가져다준 당연한 결과였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중장기병이 고구려군대의 총아로 인식되었고, 기병의 중장 정도가 그 성능을 결정했다고 보았다.¹⁾ 중장기병의 탱크와 같은 이미지만 주목했고, 말의 ‘한계중량(Pivotal Point)’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한계중량이란 그 이상의 중량은 말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지점을 말한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 경주마의 경우 말체중의 13%라고 한다. 가령 400kg의 말이라면 52kg이 한계중량이다.²⁾

말과 기수의 역량에 대한 검토도 없었다.³⁾ 한 마리의 전마를 훈련시키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능숙한 기마공사도 마찬가지다. 유년기부터 말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하며, 적어도 18세까지 말위에서 활을 쏘는 연습을 계속해야 한다. 기병은 공산품처럼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비용의 산물이다.

말 생산에 관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⁴⁾ 「신라촌락문서」에 보이는 말과 촌락 그리고 그 소유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진 연구가 있었다. 신라의 촌락에서 말을 생산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신라촌락문서」에는 많은 수의 우마가 기재양식을 벗어나 유출되거나 파악되지 않는다고 본 견해가 있었다.

A촌의 전식년의 말의 수가 22필이고 그 가운데 14필이 3살 이상의 성년 말이며 절반인 7필이 암말이라고 가정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7필의 성년 암말이 매년 7필의 새끼를 낳으면 3년 동안의 증가 수는 21필

-
- 1) 李仁哲, 「4~5세기 고구려의 남진경영과 중장기병」, 『軍史』 33, 1996.
김두철, 『韓國古代 馬具의 研究』, 동의대박사논문, 2000.
 - 2) 김병진, 「경주를 분석하는 방법」, 『굽소리』, March, 2006-vol. 209, 한국마사회. 필자는 중장기병의 한계에 대하여 앞서 논고(서영교,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의 전술과 무기」, 『高句麗研究』 17, 2004, 352-357쪽, 367-368쪽)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 3) 기수의 騎射역량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서영교, 「고구려기병과 鎧子」, 『歷史學報』 181, 2004).
 - 4) 고구려의 말 생산에 관한 일부 언급이 있었다(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1996, 65-66쪽, 104-106쪽).

이 되어야 하지만 「신라촌락문서」에는 감소한 2필을 더하더라도 증가한 수는 7필 밖에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감소한 사정을 기록한 말을 제외하고도 14필의 말이 행방불명이라는 것이다.⁵⁾

하지만 촌락에서 말을 생산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촌락문서」에 보이는 ‘가마(加馬)’를 출산을 통한 자연증가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람의 출산을 ‘삼년간중산(三年間中産)’이라 하고 있는데 망아지가 생산되었다면 ‘가(加)’가 아니라 ‘산(産)’으로 표현해야 한다. 무엇보다 말의 번식을 소의 그것과 동일하게 본다면 곤란하다. 수말은 소수의 종마만 남기고 모두 거세되며, 양질의 암말만이 교배에 선택될 뿐이다. 선택교배 없이는 좋은 말을 생산할 수 없다.⁶⁾

신라 통일기 왕실목장이 해도(海島)에 많았다고 보는 것은 편견이며, 촌락 내에도 왕실목마장이 많이 존재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⁷⁾ 「신라촌락문서」의 촌락에 많은 수의 말이 존재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능하다. 촌락은 말을 ‘사육’할 수 있는 공간은 될 수 있다. 하지만 촌락을 말을 생산하는 목마장으로는 볼 수 없다. 「신라촌락문서」에는 선택 훈련의 기술이나 수의학적인 지식을 가진 인간의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농민들이 정교한 왕실의 말을 생산하고 조련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없으며, 무엇보다 목축과 농경은 동일한 생태권 안에서 공존하기 어렵다.⁸⁾

말도 그 종자·연령·훈련정도에 따라 다르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균질한 기량을 가진 전마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종자개량과 조련의 체계가 필요하다.⁹⁾ 말에 대한 국가의 장기적·조직적 관리가 요구되는

5) 李仁哲, 『新羅村落社會史研究』, 일지사, 277-280쪽.

6)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 『역사와 현실』 45, 2002.

7) 李泰鎮, 『新羅村落文書의 牛馬』, 『民族史의 展開와 그 文化(이우성 정년논총)』 上, 1990.

8) 하자노프 著, 김호동 譯, 『遊牧社會의 構造』, 지식산업사, 1990, 70쪽.

9) 경주마를 끊임없이 개량해 왔던 근대 영국의 경우를 보자. 2,400m를 주행하는 더비에서 20초를 단축하는 능력을 가진 말을 만들어 내는데 217년이 걸렸고, 2,000m를 주행하는 쉐터더비는 종자개량에 122년이 소요되었다. 1초 단축하는데 10년이 걸린 셈이다. 대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¹⁰⁾

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은 자료의 단편이 있다. 『삼국사기』 온달전이 그것이다. 온달전은 아내의 내조로 남편이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내조는 평강공주가 선택하게 하고 직접 양육한 ‘국마(國馬)’로 표징될 수 있다.¹¹⁾ 국마란 명칭은 고구려국가가 생산하는 말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하지만 고구려 국마를 설명해 주는 기록은 거의 없으며, 『삼국사기』에 국마라는 명칭이 단 2개만 전하고 있다.¹²⁾ 국마의 용례를 전하고 있는 중국 측의 기록도 극히 드물었다. 필자가 아는 한 『사기』의 주석에서 1개, 『자치통감』에서 3개가 있을 뿐이다. 『삼국사기』 온달전의 국마에 관한 기록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국 측의 여러 기록들을 참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고에서 중국 측의 사료를 적극 활용하여 고구려 국마에 대한 자료를 분석했다. 말은 그것을 사육하거나 훈련시키는 방식에 있어 지역 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그 간극은 매우 적다. 다양한 욕망을 가진 인간보다 동물은 비교적 제한된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중국의 사례는 고구려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으며, 일반화된 시각을 투여하는 것이 가능

를 잇는 씨움이라고 할만하다. 그것은 주로 능력부진한 씨암말을 도태시키고, 보다 좋은 씨수말을 도입하는 작업이다.

- 10) 『당육전』 권17, 태복사 전구령 조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 “좋은 말 1필, 중급 말 2필, 하급 말 3필마다 丁 1인을 배정했고, 말의 먹이로 하루에粟 1斗, 소금 6작이 들었다. 암말은 4살·5살부터 증식하는데, 말은 한 해에 1백 마리당 60마리를 증식 시켜야 한다. 말이 외국에서 온 경우는 첫해에 40마리 의무를 부과했다. 다음 해에는 50마리, 3년째에는 전부를 부과한다. 일정 비율을 손실로 인정하는데, 외국에서 새로 온 말은 20필, 2년차는 15필을 빼준다.”
- 11) 이기백은 온달전을 설화적 색채를 띤 허구적인 부분으로 보았다. 전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해 버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온달의 무인으로의 성장을 공주의 내조로 보려는 것은 허구적일 것이라고 했다(이기백, 『溫達傳 檢討』,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일조각, 1996, 105-106쪽). 하지만 온달설화에는 말을 바라보는 고구려인들의 시선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록을 허구로 간주하는 것은 너무나 쉽고 간단한 논리이다.
- 12) 『삼국사기』 온달전,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근구수왕 조.

하다. 고구려에서 훌륭한 조련사는 중국에 가서도 훌륭한 조련사가 될 수 있다.

본문에서 먼저 국마의 용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고대의 그 상황을 반영하는 용어란, 세월이 흐르면서 그 뜻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삼국사기』 온달전에 보이는 국마와 시인마(市人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공주가 온달에게 구입하라고 권유했던 국마는 고구려 국가가 생산한 말이었다. 마지막으로 고구려의 국마 증식 환경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주변의 유목민족들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었다.

2. 國馬의 용례 검토

371년 백제 근초고왕 26년의 일이다. 고구려와 백제의 공방전이 가열되던 시기였다. 그 해 고구려 고국원왕의 침공 첩보를 접한 근초고왕이 패하(溟河)의 강가에 군대를 매복시켰다. 고구려군은 백제군의 급습을 받고 패했다. 그 해 겨울 백제 근초고왕은 태자(근구수왕)와 함께 3만 대군으로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이 전투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이 전사했다.

백제군이 대승을 거두는데 있어 고구려에서 귀순한 사기(斯紀)라는 자의 정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¹³⁾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 근구수왕 즉위년 조에 그의 투항 이유가 나온다.

“고구려사람 사기는 본래 백제사람이었는데 잘못하여 (백제)왕이 쓰는 ‘國馬’의 발굽을 상하게 하였다. 그는 죄를 받을까봐 두려워서 고구려로 도

13) 『삼국사기』 권24, 근구수왕 즉위년 조. “저쪽(고구려)의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나 모두 숫자만을 채운 허위의 군사일 뿐입니다. 날래고 용감한 자들은 오직 붉은 깃발의 부대뿐입니다. 만일 먼저 이를 깨뜨리면 그 나머지는 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질 것입니다.”

망하였다가 이때 (백제로) 돌아와 태자(근구수왕)에게 말하였다.”

백제의 경우에도 국마(國馬)의 용례가 보인다. 사기는 백제왕이 타던 국마의 발굽을 상하게 했다.¹⁴⁾ 왕의 말을 다치게 했으니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국마를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만큼 말을 상하게 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도 가혹했을 것이다. 사기는 고구려로 망명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백제에서 국마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마는 국가의 전쟁장비로서 소홀히 다룰 수 없으며, 그 파손에 대해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상식이다. 국마의 ‘국(國)’은 수도를 의미한다. 동맹제에 대해 『삼국지』 동이전 고구려 조에 전하는 기록을 보자.

그 ‘국’의 동쪽에 수혈이란 큰 굴이 있다. 10월 국중대회(國中大會) 때 이곳에서 수신을 맞이하여 ‘국’의 동편 (강) 위에 모셔 와 제사를 지내는데 ….

여기서 말하는 국중대회란 수도에서 큰 제의를 개최한다는 말이다.¹⁵⁾ 따라서 국마는 수도의 말이란 뜻도 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중국에서도 보인다. 『사기』 권2, 하(夏)본기 2를 보면 왕성에서 5백리 이내 천자의 복치전(服治田)에 대한 납세 품목을 100리 단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왕성에서 100리 거리의 지역은 총(總)을 부납(賦納)해야 한다. 총(總)의 의미에 대해서는 공안국(孔安國)의 주(註)에서 소개하고 있다.

14) 아마도 말 앞발의 발굽이 상했던 것 같다. 400~500kg 체중의 말이 약 60km 정도로 달릴 때 앞다리에 실리는 충격은 자기 몸무게의 10배 이상이 된다. 그래서 말의 운동 질환은 뒷다리보다 앞다리에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앞다리가 머리와 목의 무게를 더 지탱하기 때문이다(홍대유, 『말, 기수, 그리고 인연』, 우리책, 2004, 176-177쪽 참조).

15) 노태돈,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159쪽.

“공안국이 말하기를 기내근왕성자(甸內近王城者)는 벗짚(화고)을 ‘총’이라 이르는데, ‘국마’를 먹이는데 이바지 한다 ….”

왕성에서 100리에 사는 사람들은 벗짚을 부납(賦納)한다. 납세자들이 벗짚을 100리 떨어진 왕성으로 직접 옮겨, 왕성의 국마의 사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왕성에서 100리 거리에 있는 국마목장에 부납하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 국마는 왕경이나 그 교외에서 사육하는 말이다.

하지만 수도(國)의 이름이 국가의 이름이 되듯이 ‘국’은 팽창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그것이 가지는 지역적 의미보다 확대된다. 국가의 전 영토를 포괄하는 의미로 바뀔 수도 있다. 국마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말이란 뜻이 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자치통감』 권212, 당기28 현종 개원 13년(725) 11월 조를 보자.

수말에 ‘국마’가 모두 도적과 용적(戎狄)들에게 소략 당했다. 당초(唐初)에 가서 적안택에서 암수말 3천필을 얻어 농우(隴右)로 옮겨서, 태복 장만에게 명하여 그것을 관리하게 했다. 소임을 잘 수행하여 정관년간(627-649)에서 인덕년간(664-665)에 이르는 시기에 말이 번식하여 칠십만 필이 되었으며, (말은) 팔방 48감에 나누어 배치하여 각각 그것을 관리하게 하였다. 그때에 이르러 비단 1필이면 말 한 필을 살 수 있었다.

고구려침공 실패 후 일어난 수말 혼란기에 국마는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용적(戎狄)’의 ‘소략(所掠)’이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국마가 수도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국마가 용적의 지역과 가까운 곳에서 사육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당초기 국영목장(國營牧場)의 위치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당시 당은 말 암수 3천 필을 농우(隴右) - 섬서성 농현(隴縣) 서쪽 지역에 옮겨서 번식시켰다. 서북방의 농우지역은 중국의 전통적인 말 생산지역

다. 한대(漢代)부터 국영목장이 집중된 곳이었다. 한무제는 흉노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서 전마 생산에 박차를 가했다.¹⁶⁾ 국영목장의 위치는 당연히 수도를 벗어난 변방의 목초지였다.¹⁷⁾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둔다면, 국마는 주로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영목장에서 조련·생산한 전마(戰馬)이다.

하지만 국마가 모두 전마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고구려에는 역제(驛制)가 운영되고 있었다.¹⁸⁾ 『삼국사기』 권37, 지리지4를 보자.

충장 2년(669)에 영국공 이직(李勣)이 칙명을 받들어 고구려의 여러 성에 도독부와 주현을 설치하였는데. 그 목록에 이르기를 “압록(鴨綠) 이북의 이미 항복한 성이 열 하나요, 그 중의 하나가 국내성(國內城)인데 평양(平壤)으로부터 이 곳까지 17역(驛)이다” 하였으니….

고구려 멸망직후의 자료이다. 하지만 국내성 시절부터 고구려는 이미 역제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평양에서 국내성까지 이르는 17개의 역은 평양-희천-강계-집안으로 이어지는 현재의 철도 노선과 나란히 놓여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거리는 200km가 넘고 12~13km를 전후하여 역이 두어진 셈이 된다. 충분한 여물을 먹고 휴식을 취한 파발마가 질주·속주할 수 있는 거리이다. 고구려의 국마는 역마(驛馬)로도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육전』 권17, 태복사 마개인(馬皆印) 조를 보자.

관마(官馬)를 사람에게 하사하는 경우는 ‘사(賜)’자를 찍는다. 각 군에 배속

16) 서영교, 「장보고의 기병과 서남해안 牧場」, 『震檀學報』 94, 2002.

17) 『唐六典』 권17, 太僕寺 典牧署 조. “진·한은 태복의 속관에 목사원령을 두었는데, 모두 변군에 있었다(秦漢太僕屬官有牧師苑令, 皆在邊郡).” 同書 권17, 上牧 조. “태복 예하의 목사원은 36곳으로 북변과 서변에 분포되어 있는데 남으로 원감을 삼았다. 관노비 3만인이 말 30만필을 나누어 키웠는데(太僕牧師諸苑三十六所, 分布北邊西邊. 以郎爲苑監, 官奴婢三萬人分養馬三十萬頭 …).”

18) 南都泳, 『韓國馬政史』, 한국마사회, 1996, 108-109쪽.

되거나 역마(驛馬)로 충당되는 경우는 ‘출(出)자’를 찍는데, 모두 좌우 뺨에 찍는다.

당의 경우 관마(국가의 말)를 역마로 충당한 것을 알 수 있다. 역마의 경우 말의 양쪽 뺨에 표시가 되어 있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그것은 역마가 주어진 공무 외에 개인적으로 사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신구수도인 평양과 국내성 사이의 간선도로는 고구려에서 가장 중요한 국도(國道)였다. 당연히 역의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양 도시 사이 관도가 지나는 곳에 몇 개의 행정소재지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각각의 행정소재지에는 책임져야 할 역이 있었고, 국마를 국가에서 제공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금의 상당수가 사료비, 급사(急使)의 수고비, 마구, 말사육 관련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이다.¹⁹⁾ 말을 치료하거나 특별한 경우 말구입비용의 지출도 상정할 수 있다. 고구려의 시장에서는 말이 유통되고 있었다.

3. 國馬와 市人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삼국사기』 권45, 온달전에는 고구려 국마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온달에게 시집 온 평강공주는 자신이 소지한 귀금속을 팔아 전택(田宅)과 노비(奴婢), 우마(牛馬), 기물(器物) 등을 구입했다. 앞서 말을 구입할 때 공주는 온달에게 특별히 당부했다.

처음 말을 살 때에 공주는 온달에게 이르기를 “시장인의 말(市人馬)을 사지 말고 꼭 國馬를 택하되 병들고 파리해서 내다 파는 것을 사오도록 하

19) 조너선 D. 스펜스 지음, 이재정 옮김, 『왕 여인의 죽음』, 이산, 2002, 77-78쪽 참조.

시오” 하였다. 온달은 그 말대로 하였는데 공주가 먹이기를 매우 부지런히 하여 말이 날마다 살찌고 또 건강해졌다.²⁰⁾

‘시인마(市人馬)’란 표현에서 고구려의 시장에는 말이 유통되고 있었으며, 말을 거래하는 상인(市人)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짐작케 한다. 고구려의 민간인들에게 말의 수요가 상시적으로 있었고,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들이 적지 않은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

고구려에서는 초기부터 개인들이 말을 키우고 훈련시켰던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평강공주가 시인마는 건강하고 보기도 좋지만 그것을 권유하지 않았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 여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먼저 국가가 어떻게 민간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온달은 시장에서 국가를 구입했다. 고구려 국가가 양육한 말들이 시장에서 처분되고 있었기에 그것은 가능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례는 주목된다. 『당육전』 권5, 상서병부 조를 보자.

… 각 도독부에 상비된 말은 그 수가 매우 많았다. 개원 25년(737) 칙을 내려 “천하가 무사한데도 (상비의 마필이 너무 많아) 노고와 비용이 자못 번다하니 마땅히 경성과 동도에 가까운 지역에 편의에 따라 3천 필을 남겨 천자의 행차 및 가사의 승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일체 중지하라”고 하였다.

곡물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말은 사람보다 12배 이상을 먹는다.²¹⁾ 평화시 국가에서 말을 유지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 특히 풀이 없는 겨울철에 말의 곡물 소비량은 엄청났다. 국가에서 말을 시장에 처분하고 있었던

20) “初, 買馬, 公主語<溫達>曰: “慎勿買市人馬, 須擇國馬病瘦而見放者, 而後換之.” <溫達>如其言. 公主養飼甚勤, 馬日肥且壯.”

21) 『한서』 권69, 조충국전. 말이 하루에 먹는 양은 자신의 몸무게의 2.5%라고 한다. 500kg의 체중을 가진 말이라면 12.5kg를 먹어야 한다.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고구려국가가 국마를 보유하고 유지하는데 있어, 하자가 있는 말들의 지속적인 처분이 수반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지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국마의 질을 일정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한편 온달이 평강공주의 당부대로 국마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시인마와 국마는 육안으로 구별되어야 그것이 가능하다. 『당육전』 권17, 태복사 마개인(馬皆印) 조를 보자.

무릇 목에 속한 말에는 모두 낙인을 찍는다. 낙인은 오른쪽 앞발에 작은 ‘관(官)자’를, 오른쪽 넓적다리에 출생한 해를, 꼬리 곁에 감(監)의 이름을 찍는데, 모두 좌우(左右) 상(廂)에 따른다. 만약 형용이 단정하여 상승국에 보낼 말은 감의 이름을 찍지 않는다.

국영목장의 말에는 모두 낙인이 찍혀 있다. 국가의 소유를 나타내는 ‘관’자가 말의 오른쪽 앞발에 찍혀 있고, 말의 나이를 밝혀 놓기 위한 출생년도와 그것을 관리하는 목장의 이름이 낙인되어 있다. 온달이 시장에서 국마를 구분하고 그것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낙인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²²⁾

평강공주는 국마를 택하되 병들고 파리해서 내다 파는 것(須擇國馬病瘦而見放者)을 구입하라고 온달에게 당부했다. 병든 말의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온달을 국왕친임 사냥대회에 내보낼 생각을 가졌

22) 오늘날 고급자동차 도난사고가 빈번하듯이 고대에도 말 도둑이 극성이었다. 말 도둑을 예방하고 색출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 ‘낙인’이다. 낙인은 쇠붙이로 도장을 만들어 불에 달군 후 말의 엉덩이나 허벅지 등에 찍어 흉터를 내는 것으로, 소유주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다. 화상을 입은 자리에는 털도 자라지 않아 숨길 수 없는 이름표가 되었다. 최선의 도난 방지책이었던 셈이다. 조선시대 최대의 국영 목장이었던 제주도에서는 수많은 말의 수효를 헤아리기 위하여 천자문 낙인을 찍어 말을 100마리 단위로 관리했다고 한다.

던 평강공주가 가격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같은 상황을 두 번 이상 경험할 수 없는 험한 사냥터를 누벼야 하는 말은 뭔가 달라야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다.²³⁾

공주가 국마를 구입하되, 병든 말을 구입하라고 당부한 것에는 2중 제한이 있다. 그것에는 다음의 의미가 숨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건강한 국마라고 해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이 있다는 점이다. 둘째로 병든 국마가 더 좋은 말이라는 점이다. 어떻게 해서 건강한 국마보다 병든 국마를 구입하라고 했을까. 이와 관련하여 『당육전』 권17, 태복사 마개인(馬皆印) 조가 참고된다.

두 살이 되어 등뼈를 세우면 그 힘을 헤아려 ‘비(飛)’자의 낙인을, 그 왼쪽 넓적다리와 앞쪽 발에 찍는다. 좋은 말과 그 다음가는 말은 용(龍) 모양의 낙인을 그 목의 왼쪽에 찍는다. 상승국에 보내는 말은 꼬리 곁에 좌·우에 따라 ‘三花’라고 새긴 낙인을 찍는다. 그 나머지 잡마(雜馬)로 상승국에 보내는 경우는 ‘풍(風)’자 낙인을 왼쪽 앞발에 찍고, 비(飛)자의 낙인을 왼쪽 넓적다리에 찍는다. ... 락 ...

말이 2살이 되면 일단 그 힘을 시험한다. 그 가운데에는 아주 좋은 말이 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말이 있으며, 잡마로 분류될 정도로 질이 떨어지는 말도 있다. 훈련을 시키기에 앞서 말을 분류해내는 것이다. 그 기준은 말의 우수한 혈통과 훌륭한 체격이라 생각된다.²⁴⁾

23) 경마에서도 우수요인은 ‘馬七人三’이다. 경주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힘은 말이 70%이고 기수가 30%인 것이다. 마권을 구입할 때에도 말의 능력이 70%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한다.

24) 경마의 상식에서 좋은 말을 고르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말이 서 있을 때 ① 체고와 체장이 거의 비슷한 정방형의 말, ② 길고 폭넓은 정강이와 어깨를 가진 말, ③ 골반 안쪽의 근육이 발달한 말.
말이 보행중일 때 ① 굽의 회전이 잘 되고 경쾌한 보행을 하는 말, ② 말굽이 지면에 착지함과 동시에 떨어지는 말, ③ 말굽의 바닥이 완전히 보이도록 반전되는 말, ④ 앞다리

장래가 촉망되는 마필은 보편적으로 철저한 마체 검사를 받아 신체의 능력이 격렬한 운동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고 한다. 마체 검사는 말의 취약한 곳을 미리 발견하고 이를 훈련계획에 반영하여 말이 상처 입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²⁵⁾ 말은 너무 이른 나이에 훈련을 시킬 수 없다. 거의 세 살은 되어야 가능하며 4살이 적령기이다.²⁶⁾

잡마로 지목된 그것은 국영목장의 말을 도태시킬 때 첫 대상이었을 것이다. 먹이만 축내고 효율적으로 부릴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에 처분되는 건강한 국마는 잡마로 분류된 것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 공주가 국마를 구입하되, 병든 말을 구입하라고 당부한 것은 국영목장에서 좋은 말이 처분된다면 병이 들어 파리해진 그것이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영목장에서 병든 말들은 재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다. 말을 대량으로 사육하는 국영목장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말의 나이가 목장 내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면 더욱 그러하다.²⁷⁾

좋은 말들은 훈련을 받고 그 중에서도 뛰어난 말은 더 높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야말로 조련(調練)하는 것이다. 특히 전마는 비교적 여러 단계의 훈련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굽이 착지한 자리보다 뒷다리 굽이 어느 정도 앞으로 나아가는 말, ⑤ 포폭이 넓은 말.

25) 강민수, 『제주 조랑말의 활용- 승마와 승마요법』,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0, 45쪽.

26) 비르크리트 브란다우·하르트무트 쉬케르크 공저, 『히타이트』(장혜경 옮김/조철수 감수), 중앙M&B, 2002, 240-243쪽.

27) 말은 이빨로 나이를 알 수 있다. 말의 나이 1세를 사람의 나이 5세로 맞추어 비교한다. 말의 나이 4세까지는 1년이 사람의 5년에 해당하고 5세 때는 1년간이 사람의 4년간, 6세 이상은 1년을 사람의 3년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말의 1세는 사람의 5세, 2세는 10세, 4세는 20세, 5세는 24세, 6세는 27세에 해당된다. 말의 평균 수명은 말의 용도, 사양, 유전 등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 20세에서 25세라는 것이 공인된 학설이다. 말의 20세는 사람의 69세, 25세는 84세인 고령이 된다(홍대유, 『말, 기수, 그리고 인연』, 우리책, 2004, 25쪽).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말 전문 문헌인 키쿨리 텍스트는 말과 교감하는 동물 교육학적 차원의 말 훈련 지침서이다. 여기서는 184일간의 말의 훈련 일정을 다루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반년의 휴식 기간을 포함하여 약 3~4년간의 훈련일정이다. 주제는 다양한 상황에서 꺾림, 속보에서 꺾림으로, 꺾림에서 속주로 넘어가기와 꺾림에서 발 순서 바꾸기이며, 양방향 및 1/4원, 반원, 전원으로 급격하게 방향 바꾸기이다. 말에게 매일 정해진 숙제를 부여하고, 반드시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훈련연습은 매일 변화를 주되 끊임없이 반복학습을 시켜야 한다. 훈련이 최고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조련사가 풍부한 생리학적 전문지식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조련사는 말과의 심리적인 교감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일정정도의 정식 커리큘럼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²⁸⁾ 온달은 국왕친임 사냥대회에 참여하여 출중한 기량을 발휘하였다. 여기서 국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말은 사냥에서도 기량을 발휘하기 어렵다.

『당육전』 권17 태복사(太僕寺) 노거(駱車) 조를 보면 “무릇 노거의 말은 어사(馭士)들에게 미리 훈련하고 길들이게 한 다음 노와 거를 끌게 했다”라고 한다. 말은 천성적으로 수레(車)를 끌기에는 부적합한 동물이다. 말은 똑바로 달리지 않는다. 앞발과 뒷발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을 일직선으로 달리도록 훈련을 시켜야 한다. 또 보통은 앞발에 더 무게가 실리기 때문에 기수가 말에 타거나 마차를 끌 때는 무게를 일부 뒷다리로 옮기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 주인이 고삐를 이용해 명령을 내리면 놀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일 없이 고분고분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말은 극도로 예민하고 겁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마차를 모는 사람이 말과 신뢰를 쌓아야 한다. 말에게 인간파트너를 완전히 신뢰하게 하고 그의 지시와 도움을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을 주어야 한다. 폭력을 행사하여 말을 훈련시킬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자세 불량과 계속되는 경련으로 단기간 안에

28) 비르크트 브란다우·하르트무트 쉬케르크 공저, 『히타이트』(장혜경 옮김/조철수 감수), 중앙M&B, 2002, 240-243쪽.

말의 근육과 관절이 마모되어 버린다.²⁹⁾

한편 시인마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의 민간에서 개인들이 말을 보유하고 있었다. 시장에서 유통될 정도로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는 고구려의 대규모 기병동원력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645년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할 때의 일이다. 그 해 4월 계모성과 비사성을 함락시킨 당군이 요동성을 포위했다. 이적(李勣) 예하의 당군이였다. 원군이 없는 농성전은 의미가 없다. 평양의 고구려 본부에서 국내성과 신성에 명령을 내렸다. 포위된 요동성을 구원하라는 것이다. 고구려 기병 4만이 여기에 동원되었다.³⁰⁾ 국내성은 구도이고 평양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신성도 고구려에서 큰 성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단 2개의 성에서 차출할 수 있는 기병의 규모로서는 상당히 많으며 여기에는 적지 않은 개인들의 말이 징발되었을 수도 있다.

『구당서』 권199, 고려전에 전해지는 고구려의 법률 가운데 “우마(牛馬)를 죽인 자는 노비로 삼는다”라는 구절이 보인다. 국가가 민가의 우마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이는 비상시 고구려국가가 민간에서 사육되는 우마를 동원·징발하는 것을 염두에 둔 법령일 수도 있으며, 우마에 대한 행정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던 것을 암시한다.³¹⁾

개인이 소유한 말 가운데에도 상당히 훈련이 잘된 것도 있다. 고위 귀족의 말들은 얼마나 좋았을까. 그들은 좋은 혈통의 말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노련한 조련사들에게 훈련을 시키게 했을 것이다. 그것은 국마 이상의

29) 마학(馬學)의 전문가 프랑크 슈타르크의 지식을 전폭적으로 수용한 비르키트 부란다우의 견해이다(비르키트 부란다우·하르트무트 쉬케르크 공저, 『히타이트』(장혜경 옮김/조철수 감수), 중앙M&B, 2002, 240-243쪽). 말의 힘은 앞다리에 실린다. 말이 네 발을 버티고 서 있을 때 체중의 60%는 앞다리에 실리고 나머지 40%는 뒷다리에 실린다. 그것은 앞다리가 머리와 목의 무게를 더 지탱하기 때문이다(홍대유, 『말, 기수, 그리고 인연』, 우리책, 2004, 176-177쪽).

30) 『신당서』 권220, 고려전. “勤塗圍遼東城. 帝次遼澤, 詔壓隋戰士露髓. 高麗發新城, 國內城騎四萬救遼東.” 『구당서』 권199, 고려전을 보면 기병과 보병 4만으로 명기되어 있다.

31) 이점 이도학 교수의 지적에서 시사 받은 바 크다(한국고대사학회월례발표, 2006년 4월 10일, 동국대 학술문화관).

기량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말은 많은 시간과 애정이 투여되는 장기간 훈련을 받아야 한다. 물론 주변의 환경도 좋아야 한다. 여유를 갖고 많은 시간을 들여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층이 아닌 일반인들은 사정이 다르다.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되는 훈련과정을 일반 개인이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훈련과정을 모두 통과한 것이 아니라 낙오하여 도태된 그것일 가능성이 있다.

대체로 숙련된 조련사들의 많은 수가 국가의 관리 하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말을 훈련시키는 기술이 개인의 그것보다 국가가 평균적으로 높았다고 볼 수 있다. 온달이 살았던 당시 고구려 국가의 말 양성 환경은 양호했다. 고구려 평원왕대(559-589)에 유목민인 거란인 1만가가 고구려에 들어와 있었다.³²⁾ 『수서』 권84, 거란전을 보자.

“그 후 돌궐의 꺾막을 받자 (거란) 1만가가 고구려에 기탁했다(其後爲突厥所逼, 又以萬家寄於高麗).”

돌궐이 팽창하면서 거란족이 그 압력에 시달리게 되었다. 근 4~5만 이상의 거란인들이 고구려에 유입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유목민인 그들은 빈손으로 고구려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최소한 10만 여두 이상의 가축을 이끌고 왔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거란인들은 고구려의 유용한 말 공급처가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문자왕대(492-518)에도 고구려는 거란족 일부를 지배 하에 두고 있었다. 그들은 고구려 국가의 통제에 철저히 복종하고 있었다. 『위서』 권32, 봉궐전을 보자.

32) 이재성은 거란 1만가의 고구려 기속을 555년 이후 580년대 초반 사이로 보고 있으며, 전후 사정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李在成, 『古代 東蒙古史研究』, 법인문화사, 1996, 206-207쪽).

“앞서 거란이 (북위의) 변민(邊民) 60여명을 노략(擄掠)하고 또 고구려의 호위 하에 동쪽으로 돌아갔다. (북위관리) 봉궤(封軌)가 그 상황을 모두 듣고, (고구려에) 글을 보내 그러한 일에 대하여 경고하고 노략해간 사람들을 요청했다. (고구려왕) 운(雲-문자왕)이 노략해간 사람들과 재물을 모두 돌려보냈다.

거란이 북위의 변민을 잡아갔다. 그런데 북위의 관리 봉궤는 고구려 문자왕에게 북위 변민들의 인도를 요청한다. 북위는 고구려가 거란을 조정하는 배후인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고구려의 영토 안에 생활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거란인들이³³⁾ 고구려를 위해 북위의 변민을 납치했고, 문자왕의 명으로 북위인들을 송환해주었다. 이러한 정도의 통제력이라면 고구려는 거란족에게 말을 길들이고 양성할 수 있는 의무를 충분히 부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말을 양육하고 조련하는데 있어 유목민들은 높은 기량을 가지고 있었다.

사막과 초원에 사는 유목민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사육하는 가축 외에도 말과 낙타와 개를 기르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양이나 소처럼 식량이나 의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목축 일을 돕는 것이다. 말·개·낙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유목민의 놀라운 재주는 발휘되지 않는다. 양이나 소는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길들이기만 하면 되지만, 말·개·낙타는 길들일 뿐만 아니라 훈련을 시켜야 한다. 비인간적인 협력자를 길들일 뿐만 아니라 훈련시키는 기술의 개발은 유목민의 최대 업적이다.³⁴⁾

온달전에 보이는 국마와 시인마의 차이는 그것의 훈련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말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다. 파리하고 야위었지만 훈련받은 국마(國馬)는 건강해진다면 예전의 기량을 회복할 수 있다.

33) 李在成, 『古代 東蒙古史研究』, 법인문화사, 1996, 179쪽.

34) 토인비저, 길현모 외 옮김, 『歷史研究』 3, 동서문화원, 1974, 46-47쪽.

서영교, 「신라 통일기 기병증설의 기반」, 『역사와 현실』 45, 2002, 152쪽.

또한 국마와 개인들이 소유한 시인마는 말의 혈통에도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국가가 우수한 말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국마 가운데 부진한 씨암말을 도태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시도했고, 보다 좋은 씨수말을 유목민으로부터 도입해야 했을 것이다. 부진한 씨암말의 도태와 좋은 씨수마의 도입은 수십년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작업이며, 일반인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일반인들은 좋은 씨수마를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씨암말을 도태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그들에게 당장 이익이 되지 않는다.

4. 國馬의 증식과 遊牧民

고구려는 건국초기부터 멸망할 때까지 유목민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AD 8년 유목민인 선비족의 일파가 고구려에 복속된 바 있었고,³⁵⁾ 신대왕(165-178)대에 유망하던 유목민(胡族) 5백여 호를 받아들이기도 했다.³⁶⁾ 49년 봄에는 선비의 이종(鮮卑異種)인 만리(滿離)와 함께³⁷⁾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 북중국의 깊은 곳까지 급습했다. 그 해 후한은 고구려에 대하여 회유책을 썼다. 『후한서』 권20, 제준(祭遵)부 제웅전을 보자.

건무 25년(49) 제웅(祭彤)은 사인(使人)을 시켜 선비(鮮卑)를 불러와서 제리(財利)를 과시하였다. 선비의 대도호(大都護) 편하(偏何)가 건사봉헌(遣使奉獻)하고 귀화하기를 원하여 제웅이 위로하고 상을 주니 얼마 안 있

35) 『삼국사기』 권13, 유리명왕 11년.

36) 『삼국지』 권30,동이 고구려전. “백고(伯固; 8대 신대왕, 165-178) 때부터 (고구려는) 자주 요동을 노략질 하였고, 또 유망한 胡族 5백여 호를 받아들였다(自伯固時, 數寇遼東, 又受亡胡五百餘家).”

37) 박경철, 「고구려의 異種族支配 실상」, 『韓國史學報』 15, 고구려사학회, 2003, 295쪽.

어 다시 친히 항부(降附)하였다. (선비와) 이종(異種)인 만리(滿離)와 고구려도 마침내 낙역(駱驛)하여 관새(款塞)하고 초구(貂裘)와 호마(好馬)를 올리니 황제는 곧바로 그 상사(賞賜)를 두 배로 하였다.

고구려·만리는 후한과 조공 형식을 띤 교역을 하는데 초구(貂裘)와 호마(好馬)를 후한에 증여했다. 고구려나 만리 양자 가운데 호마의 생산자가 누구이든지 당시 고구려는 호마의 안정적인 공급을 받고 있었을 것이다.

국마의 증식과 질을 유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초원으로부터 용마(戎馬)의 유입이 가장 효과적이었다. 중국의 경우를 보자.

돌궐(突厥)의 비가가한(毘伽可汗)이 그 대신 메록철(梅祿啜)을 파견하여 입공(入貢)했다. 토번(吐蕃)이 과주(瓜州)를 쳐들어와, (돌궐) 비가가한에게 서를 보내어 함께 (중국에) 들어가 약탈하자고 했다. 비가가한이 그 서한을 (당현중에게) 병헌(並獻)하니, 현중이 그 일을 기뻐하여 서쪽의 항성(降城)들을 호시(互市)로 삼는 것을 허락했다. 매년마다 비단 수십만 필이 용마(戎馬)와 교환되었다. (그 용마로) 군려(軍旅)를 돕고 또 감목의 종(種)으로 삼으니 이로 말미암아 국마(國馬)가 더욱 성하고 강해졌다(『자치통감』 권213, 당기29 개원 15년(727) 9월 병술(丙戌) 조).

당은 호시(互市)를 통하여 돌궐의 말을 본격적으로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로 말미암아 말 증식에 탄력이 붙었고 국마의 질도 향상되었다.

당시 당은 기병양성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은 숙적 토번과의 만성적인 전쟁상태에 있었다. 실크로드를 놓고 벌어진 당과 토번의 전쟁은 치열했다. 과거 유목국가 토욕혼을 병합한(660-667) 토번의 기병전력은 크게 향상되어 있었다.³⁸⁾ 토번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좋은

38) 서영교, 『羅唐戰爭의 개시와 그 배경-國際情勢 변화와 관련하여-』, 『歷史學報』 173, 2002.
_____,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7, 2002.

전마의 증산이 절실했지만 그 소모를 따라잡지 못했다. 당은 국마의 증식을 위해 서북방으로부터 말을 대거 수입해야했던 것이다.

이는 고구려와 유목민의 관계를 생각하는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전쟁이 지속될 시 자국에서 생산된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소모를 결코 따라잡지 못한다. 고구려 내에서 유목민들이 말을 생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외부에서 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전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자치통감』 권212, 당기28 현종 개원 13년(725) 11월 조를 보자.

수공(垂拱; 685-688) 이후 마(馬)가 태반으로 줄었다. 현종 즉위 초기에 목마(牧馬)가 20만 필이었는데 태복경(太仆卿) 왕모중(王毛仲)을 내외한구사로 삼고, 소경(少卿) 장경순(張景順)을 그 부(副)로 삼음으로써 말이 43만 필이 되었다. …략…

현종대 당의 국마가 20만 필에서 43만 필로 증가했다. 물론 태복경 왕모중과 소경 장경순 등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돌궐 말의 수입이 보다 큰 요인이었다. 앞서 태종·고종기의 국마의 증식도 마찬가지였다.

다 아는 바와 같이 630년 돌궐이 자체 붕괴된 이후 부족민을 거느린 돌궐 추장들이 중국으로 대거 유입되었다. 그 규모는 10만으로 추산된다. 말을 거래하는 시장이 개설되었고 당 정부는 이들로부터 막대한 수를 구입했다.³⁹⁾

고구려와 유목민 사이에 교시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605년 수가 돌궐 계민가한(啓民可汗) 휘하의 2만기(騎兵)를 동원하여 거란을 유린한 바 있다. 이 때 돌궐군대는 고구려와 교역을 위해 이동하는 상단(商團)으로 위장했다.⁴⁰⁾ 대규모의 돌궐인들이 고구려와 교역을 위해 유

39) 서영교, 『高句麗의 對唐戰爭과 內陸아시아의 諸民族』, 『軍史』 49, 2003.

40) 『신당서』 권116, 위운기전. “始, 契丹事突厥無間, 且不虞雲起至. 既入境, 使突厥給雲詣柳

성으로 이동하는 것을 거란인들은 의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거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유성은 이전부터 중원의 제품·고구려의 생필품·유목민의 말이 상호교환 되는 장소였다. 유목민들과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고구려는 그들이 원하는 곡물과 철, 생필품 등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고, 말을 포함한 가축을 받았을 것이다.⁴¹⁾ 정착국가와 유목민과의 관계는 교시(交市)에서 맺어지는 경우가 많다. 『진서』 권125, 풍발전을 보자.

고막해(庫莫奚)의 처출고진이 3천여 락을 거느리고 와서 교시(交市)를 요청하면서 1천 필을 헌납하므로, (북연의 풍발이) 그것을 허락하여 영구(營丘)에 교시를 설치하였다.

411년 북연(北燕)의 풍발에게 유목민인 고막해가 교시를 요청하였다.⁴²⁾ 고막해는 북연에게 말 1천 필을 주고 교시를 통해 곡물 등 생필품을 받아 갔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가 유목민에게 항상 평화적으로 말을 공급받았던 것은 아니었다. 395년 고구려는 거란계 유목민인 패려(裨麗)를 약탈했다. 「광개토왕비」 영락 5년 조를 보자.

패려(裨麗)가 고구려인에 대한 (노략질을 그치지 않으므로), 영락(永樂) 5년 을미(乙未)에 왕이 친히 군사를 이끌고 가서 토벌하였다. 부산(富山), 부산(負山)을 지나 염수(鹽水)에 이르러 그 3개 부락(部落) 600~700명(營)을 격파하니, 노획한 소·말·양의 수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었다.

城與高麗市易，敢言有隋使在者斬。契丹不疑，因引而南，過賊營百裏，夜還陣，以遲明掩擊之，獲契丹男女四萬，以女子及畜產半賜突厥，男子悉殺之，以餘衆還，帝大喜。”

41) 이러한 유목민과 정착국가의 관계는 자연적 재앙이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 초원이 가뭄이 들었다면 인접한 고구려도 그러하다. 이는 고구려의 곡물 수확의 감소를 가져올 것이고 유목민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 이는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42) 李在成, 『古代 東蒙古史研究』, 법인문화사, 1996, 119-120쪽.

서북방 초원으로 진군한 광개토왕은 패려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얻어진 결과는 만족할만한 것이었다. 말을 비롯하여 노획한 가축들이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았다. 이와 관련하여 고구려와 인접한 동시대 후연(後燕)의 예는 참고가 된다. 395년 하북의 강국이었던 후연이 내몽고의 참합피(參合陂)에서 북위에 참패했다.⁴³⁾ 이를 기점으로 수세에 몰린 후연은 397년에 영토의 대부분을 상실하고 그 이듬해 하북(河北)에 위치한 수도 중산(中山)까지 함락되어 요서의 지방정권으로 전락했다. 그 직후인 398년에 모용농과 모용보 사이의 대화는 주목된다.

요서왕 모용농이 (모용)보에게 말하기를 “이제 막 천도하였기 때문에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어야지 남정(南征)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먼저 군대를 정비한 후 고막해(庫莫奚)를 습격하여 그 마우(馬牛)를 얻어 군자를 충실히 하고 다시 (북위의) 허실을 살피 내년을 기다려 남정을 의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⁴⁴⁾

요서의 용성(龍城)으로 내몰린 후연이 북위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고막해에 대한 약탈을 계획하고 있다. 유목민에게서 빼앗아 오는 것도 말을 확보하는 방법의 하나였다. 그들에게 가축을 길러서 군자로 삼아야 한다는

43) 『자치통감』 권108, 진기30 효무제 태원20년(395). “冬十一月, 己卯, 暴風, 冰合. 魏王珪引兵濟河, 留輜重, 選精銳二萬餘騎急追之. 燕軍至參合陂, 有大風, 黑氣如坭, 自軍後來, 臨覆軍上. 沙門支曇猛言於寶曰: “風氣暴迅, 魏兵將至之候, 宜遣兵禦之.” 寶以去魏軍已遠, 笑而不應. 曇猛固請不已, 麟怒曰: “以殿下神武, 師徒之盛, 足以橫行沙漠, 索虜何敢遠來! 而曇猛妄言驚衆, 當斬以徇!” 曇猛泣曰: “苻氏以百萬之師, 敗於淮南, 正由恃衆輕敵, 不信天道故也!” 司徒德勸寶從曇猛言, 寶乃遣麟帥騎三萬居軍後以備非常. 麟以曇猛赤妄, 縱騎遊獵, 不肯設備. 寶遣騎還調魏兵, 騎和十餘裏, 即解鞍寢. 魏軍晨夜兼行, 乙酉, 暮, 至參合陂西. 燕軍在陂東, 營於蟠羊山南水上. 魏王珪夜部分諸將, 掩覆燕軍, 士卒銜枚束馬口潛進. 丙戌, 日出, 魏軍登山, 下臨燕營. 燕軍將東引, 顧見之, 士卒大驚擾亂. 珪縱兵擊之, 燕兵走赴水, 人馬相騰, 躡壓溺死者以萬數. 略陽公遵以兵邀其前, 燕兵四五萬人, 一時放仗斂手就禽, 其遺迸去者不過數千人, 太子寶等皆單騎僅免.”

44) 『자치통감』 권110, 진기32 안제 隆安 2년. “遼西王農言於寶曰: 今遷都尙新, 未可南征, 宜因成師襲庫莫奚, 取其牛馬以充軍資, 更審虛實, 俟明年而議之.”

강박관념은 없었다. 고구려도 역시 그러했다.

고구려의 장수왕은 유연(柔然)과 모의하여 지두우족을 분할하고자 했다. 『위서』 권84, 거란전을 보자.

태화 3년 고구려가 몰래 유연과 모의하여 지두우(地豆于)를 취하여 나누려고 하였다. 거란은 이들의 침탈을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거란의 막불하(莫弗賀) 몰우(勿于)는 그 부락의 거(車) 3천승과 중(衆) 1만 여명을 거느리고 잡축(雜畜)을 몰고 (北魏의 영내에) 들어와 내부(內附)하기를 청했다.

479년 장수왕은 고구려기병을 북방초원으로 보냈다. 이에 앞서 장수왕은 북방초원의 패자인 유연(柔然)의 가한(可汗) 자성(子成)에게 비밀스런 제의를 했다. 고구려가 먼저 남쪽에서 지두우족을 칠 것이니 유연은 그 북쪽에서 공격하라고 했다. 남북 양면에서 그들을 차지해 들어가 분할하자는 것이다. 유연과 합의가 이루어진 후 고구려는 군대를 북방초원으로 출동시켜 지두우족을 공격했고, 지두우가 거란의 경내로 들어갔다.⁴⁵⁾ 거란의 무리들이 수레와 잡축을 이끌고 북위로 투항하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 과정은 의외로 컸다.

태화 4년(480)에 별안간 고막해(庫莫奚)가 (북위의) 새내(塞內)에 들어와 지두우의 초락이 두렵다고 말하니 (북위황제가) 조서를 내려 엄히 지두우를 질책했다(『위서』 고막해전).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지두우족은 거란과 인접한 고막해의 영역으로도 들어간 것 같다. 지두우가 고막해를 북위의 국경으로 밀어냈던 것이다. 초원에서 고구려군의 군사행동이 말의 수급문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장수왕은 지두우와 거란의 땅만을 탐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력과 가축도

45) 『수서』 권84, 거란전. “후위시대에 고구려의 침입을 받아 부락 만여구가 (후위에) 내부를 위하여 백랑하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439년 유송은 당시 북위와 전쟁 중이어서 고구려에 말을 요청했고, 이에 고구려 장수왕은 말 800필을 송에 보냈다.⁴⁶⁾ 당시 송이 말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고구려에 한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송은 서쪽의 유목민인 토욕혼과 왕래가 있었다. 송의 요청은 고구려의 말이 우수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송이 가져간 고구려의 말은 전쟁을 위해 조련된 기병용 말이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⁷⁾ 당시 고구려도 북위와 긴장관계에 있었다.⁴⁸⁾ 기병전력의 강화가 절실했고, 상당한 전마의 생산과 외부유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구려는 상당한 수의 말과 소를 보유하고 있었다. 645년 당군이 요동성을 함락시키고 안시성에 임박하자, 고구려는 북부육살 고연수와 남부육살 고혜진을 필두로 하는 15만의 고구려·말갈 혼성군을 동원하여 안시성을 구원하고자 했다. 고구려군은 수만의 기병과 그와 같은 비슷한 수의 보병 그리고 보급품을 가득 적재한 수레로 이루어져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일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았다. 고구려군이 당의 유인술에 걸려 격파되었던 것이다. 이때 당군이 노획한 우마가 10만이었다.⁴⁹⁾

고구려는 일반인들로부터 상당수 우마를 징발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다 그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우마 10만 이상을 동원하는데 백성들로부터 징발하는 것만으로는 어렵다. 개인이 사육한 말은 훈련 상태나 질의 균질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모두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상태에 있

46) 『송서』 권97, 고구려전. “璉每歲遣使. (元嘉)十六年, 太祖欲北討, 詔璉送馬, 璉獻馬八百匹.”

47) 노태돈,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999, 303쪽.

48) 436년 고구려는 북연 수도를 약탈하고 그곳의 사람들을 모두 고구려로 데리고 온 바 있다. 북위는 북연의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화룡성의 고급인력과 물자는 고구려가 모두 가로챘다. 이에 분개한 북위의 황제는 농우에 있는 북위의 기병을 징발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했다(徐榮教, 『北魏 馮太后的 執權과 對高句麗政策』, 『中國古代史研究』 11, 2004).

49) 『신당서』 권220, 고려전. “帝料酋長三千五百人, 悉官之, 許內徙, 餘衆三萬縱還之, 誅鞬靺三千餘人, 獲馬牛十萬, 明光鑑萬領.” 『구당서』 권199, 고려전을 보면 馬가 3만 필이고 牛가 5만 두라고 한다.

다고도 할 수 없다. 고구려가 유목민으로부터 말을 가져오던, 자체에서 양육하던 간에 그것을 관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초원과 인접한 고구려의 북부지역에 대규모 국영목장들이 운영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5. 맺음말

“말을 사육하거나 훈련시키는데 있어 지역별 시대별 차이는 적다. 시공간을 초월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구려 국마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이제 본문을 요약하고 필자의 견해를 붙이는 것으로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삼국사기』 온달전에서 평강공주는 좋은 말을 선택하고 사육하는 능력의 소유자였다. 공주는 온달에게 시인들의 말(市人馬)을 사지 말고 국마(國馬)를 구입하라고 충고한다. 국마 가운데서도 파리한 것을 권유한다. 처음에 건강치 못한 국마는 공주가 사육한 후에는 기력을 되찾는다. 온달은 그 말을 타고 국왕 친임사냥대회에 참가하여 특출한 기량을 발휘하게 되고, 나아가 무장으로 등용이 되어 적(북주)의 외침을 막아낸다.

궁중에서 자란 평강공주가 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까. 하지만 그 가능성의 여부를 떠나 말을 고를 수 있는 고구려여성들의 능력이 온달전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싶다. 『동명왕편』에 의하면 주몽은 어머니 유화(柳花)의 도움으로 날랜 말을 알아내어 이것을 획득한다.⁵⁰⁾

온달은 국마를 구매하기 위해 시장으로 갔다. 국가가 처분하는 국마가 시장에 나와 있었다. 국가는 하자가 있는 말들을 지속적으로 처분해 왔을 것이다.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지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국마의

50) 『譯註三國史記』 3, 정문연, 1997, 409쪽(주 29) 재인용.

질을 일정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다.

조련과정에서 좋은 말과 좋지 않은 말은 자연스럽게 구분된다. 좋지 않은 말은 잡마(雜馬)로 분류된다. 평화 시 국가가 말을 부양하는데 부담이 될 경우 그것은 처분의 유력한 대상이다. 훈련을 받은 국마라 하더라도 건강치 못하면 처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말을 대량으로 보유한 국영목장에서 재생의 기회를 가지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공주가 권유한 국마는 건강치 못한 것이었다. 공주는 시인마가 건강하고 보기도 좋지만 그것을 애초에 권유하지 않았다. 시인마는 훈련과정에서 탈락을 수반하는 검증과정이 없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다. 시장에 나온 건강한 국마는 훈련을 받았다고 해도 검증과정에서 초기에 탈락한 것이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말은 애초에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국영목장에서 제대로 훈련받은 국마가 건강만 회복한다면 과거와 같은 기량을 가질 수 있다. 숙련된 조련사들은 대부분 국가의 관리 하에 있었다.

한편 시인마의 존재는 고구려에서 말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고구려의 민간인들에게 말의 수요가 상시적으로 있었고, 개인들이 적지 않은 말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도 유사시를 대비하여 권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북사』 고려전에는 “봄·가을에는 매년 전렵을 하는데 왕이 직접 참석하였다”라고 하여 고구려에서 매년 봄과 가을에 국왕이 친히 임하는 사냥대회가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⁵¹⁾ 그 참여범위는 신하들과 5부의 병사 모두였다.⁵²⁾

『삼국사기』 온달전에서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말을 사주고 그것을 사육한 것은 이 사냥대회에 그를 참여시키기 위해서였다. 물론 온달뿐만 아니라

51) 『수서』 권81, 고려전에도 “每春秋郊獵 王親臨之”라 하여 같은 기록이 보인다.

52) 『삼국사기』 권45, 온달전. “고구려에서는 봄철 3월 3일이면 樂浪 언덕에 모여 田獵을 하고, 그 날 짙은 산뱀지·사슴으로 하늘과 산천신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날이 되면 왕이 나가 사냥하고, 여러 신하들과 5부의 병사들이 모두 따라 나섰다.”

다른 5부의 젊은이들도 국왕과 고관대작들이 직접 참관하는 사냥에 나아가기 위해 평소에 실력을 갈고 닦았을 것이다. 국가적 사냥대회는 등용의 창구이기도 했을 것이며, 그것은 젊은이들이 평소에 기마궁술을 연마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을 것이다. 국가가 노린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고구려국가는 유목민들로부터 말을 조달 받을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휘하에 직접 유목민들을 거느리거나, 최소한 그들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기도 했다. 유목민들의 말을 구입하는데 있어 국가가 이를 독점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고구려는 유목민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탈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되찾아 오기도 했다. 때로는 고구려가 유목민들을 습격하여 그들의 가축들을 몰아오기까지 했다.

한편 고구려는 외국에 말을 내보내기도 했다. 439년 송 황제의 요청에 따라 고구려 장수왕은 말 800필을 송에 보냈다. 외교적 고려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구려의 국영목장에서 말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장수왕 27년 당시 고구려는 유목민이 세운 북위와 긴장관계에 있었다. 기병전력의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었다. 송의 황제에게 보내준 그 말은 잘 조련된 전마였다고 생각된다.

필자의 능력부족으로 본고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이 적지 않다. 국마의 비중이 고구려 국영목장 생산과 외부유입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높은지 밝히지 못했고, 고구려 국내 자체의 말 생산구조에 대한 설명도 미진했다. 또한 유목민으로부터 용마의 유입이 얼마나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었나에 관한 설명도 충분치 못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고구려 국영목장에 관한 사료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구려 국영목장에 대한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주몽설화에서 부여 왕실목장에 관한 기록이 간취된다. 그래도 이것만으로 고구려의 말 생산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다만 초원으로로부터 말의 유입에 관한 문제는 앞으로 더 심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전쟁상태에서 말의 생산은 그 소모를 따라잡지 못한다. 서북방으로부터 말이 대거 유입되어야 한다. 고구려 내에서 말을 자체 생산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외부에서 말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지 않는다면 전쟁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고구려가 백제와의 장기간 전쟁에서 우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군수물자를 외부로부터 반입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기 때문일 수도 있다. 약탈이든 교역으로 구입하든 간에 고구려의 서북쪽에는 전마가 많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395년 고구려 광개토왕은 패려에 대한 대규모 군작전을 통해 군자로 쓸 수 있는 많은 가축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396년에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왕의 항복을 받아냈다.⁵³⁾ 서북방에서 확보된 군자가 남쪽의 백제를 치는데 활용되었다.

(원고투고일 : 2006. 9. 29, 심사완료일 : 2006. 11. 16)

주제어 : 『삼국사기』 온달전, 국마, 시인마, 고구려기병, 유목민

53) 『광개토왕비문』 영락(永樂) 6년(396년) 병신(丙申) 조. “왕이 친히 군을 이끌고 백잔국(百殘國)을 토벌하였다. 고구려군이 (3字 不明)하여 영팔성, 구모로성, 각모로성, 간저리성, □□성, 각미성, 모로성, 미사성, □사조성, 아단성, 고리성, □리성, 잡진성, 오리성, 구모성, 고모야라성, 혈□□□□성, □이야라성, 전성, 이리성, □□성, 두노성, 비□□리성, 미추성, 아리성, 태산한성, 소가성, 돈발성, □□□성, 루매성, 산나성, 나단성, 세성, 모루성, 우루성, 소회성, 연루성, 석지리성, 암문□성, 임성, □□□□□□□리성, 취추성, □발성, 고모루성, 윤노성, 관노성, 삼양성, 증□성, □□노성, 구천성 … 등을 공취(攻取)하고, 그 수도(首都)를 … 하였다. 백잔(百殘)이 의(義)에 복종치 않고 감히 나와 싸우니 왕이 크게 노하여 아리수를 건너 정병(精兵)을 보내어 그 수도(首都)에 육박하였다. (百殘軍이 퇴각하니 …) 곧 그 성을 포위하였다. 이에 백잔주(百殘主)가 곤핍(困逼)해져, 남녀(男女) 생구(生口) 1천 명과 세포(細布) 천 필을 바치면서 왕에게 항복하고, 이제부터 영구히 고구려왕의 노객(奴客)이 되겠다고 맹세하였다. 태왕은 (百殘主가 저지른) 앞의 잘못을 은혜로서 용서하고 뒤에 순종해 온 그 정성을 기특히 여겼다. 이에 58성 700촌을 획득하고 백잔주(百殘主)의 아우와 대신 10인을 데리고 수도로 개신하였다.”

<ABSTRACT>

Goguryeo's Warhorses

Seo, Young-kyo

This study is focused on “how much the cavalry are skilled in riding horse” rather than “what kind of equipments do they have.” Equipping good armor and weapon is of no use if they are not good at riding horse. The equipments can be rather burden due to its weights. Let us think of an example; A nomad who has been riding horses since in his childhood, as growing up in nomadic tribe. A scholar who is being trained during short-term having been grew in cultivated region. The former is real “nomad cavalry”, and the latter is just a “infantry” who can ride a horse. It means that the latter can use horses only for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Riding horse” is not as same as “using weapons in riding horse.” Indeed it is effective that putting on armor gives resistibility and also makes horse and rider more safety. Armored cavalry takes the lead when light cavalry attack the enemy infantries together. In this situation, Armored cavalry takes the role of shield, it also raise survival rates of light cavalry. But armored cavalry was not the best form of force; it arranged when the skill of riding archery weakens armored cavalry also are able to shoot an arrow. Their shooting, however, is very bad because they are not well-practiced riders. So they used very plain tactic: onrushing to enemy to be formed in line, putting behind the arrows. There were no choice without direct battle because they are not good at shooting arrows so much as nomads. Armored cavalry is defenseless at the enemy's arrow shooting. Naturally the

thickness of armory grows due to fear of arrow. It means that they admit by themselves the lack of confidence about horsemanship. We have been overestimating of Armored cavalry. Nomads can shoot arrows well with riding horses, but not for the agricultural people. Tons of training should be required for hitting the mark well on rocking horse; riding from babies, scampering well at the age of ten and practicing at least 10 years after ten. It means, for well-riding, people must ride a horse day in and day out. There aren't any picture of using arrows by armored cavalry at murals from Goguryeo's tomb. It tells something pregnant point to us.

Key Words : *Samguksagi's* Ondal Story, *Goguryeo's* Warhorses, Mart Horse, *Goguryeo's* cavalry, Nomad

K C I